韓末의 西歐經濟學導入과 日帝下의 經濟學

李 基 俊*

<目 次>

I. 概觀——本論文의 프로그램
II. 西歐經濟學導入의 胎動
III. 韓末의 導入經濟學
IV. 日帝下의 經濟學動向
V. 結 語

I. 概 觀——本論文의 프로그램

自主獨立과 近代化를 希求한 國民經濟가 그 指針이라고 할 수 있는 經濟活動의 理論的 基礎를 求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開港은 近代 西歐經濟學(理論·思想·政策)의 導入의 契機가 되었고, 따라서 韓國의 西歐經濟學의 歷史는 1百年의 긴 길을 밟아 왔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近世 1世紀의 歷史가 보여준 바와 같이 파란만장의 繁榮과 衰亡을 되풀이한 歷史였다고 할 수 있다.

體系的인 西歐經濟學이 導入되기에 앞서 經濟學(Economics)이란 용어가 當時의 知識社會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84年의 漢城旬報에서 職工經濟學·經濟 및 統計之學으로 紹介된 것이다.(1) 그 후 同旬報와 漢城周報는 寶節德(H. Fawcett)(2)과 抹制(T. Malthus)(3) 등의 經濟學說을 初步的으로 紹介하였고, 1895年에 發刊된 俞吉濬(4)의 『西遊見聞』에서도 寶利柔(5)(P.L. Beaulieu)의 租稅論을 비롯 貨幣의 大意·西歐社會의 經濟制度를 部分的으로 揭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을 體系的으로 紹介한 것은 아니었다.

* 前 韓國開發研究院 理事長

(1) 漢城旬報(26), 1884. 7. 3 및 同上(29), 1884. 8. 1.
(2) 同上(19), 1884. 4. 25.
(3) 漢城周報(22), 1886. 6. 28.
(4) 經濟理論導入面에서 볼 때 매우 애석한 것은 俞吉濬이 그의 『西遊見聞』을 著述함에 주로 참고 삼은 日人 福澤諭吉의 『西洋事情』에 나타나 있는 「經濟學이란 무엇인가」라는 一章을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福澤에 따라 그 章을 紹介하였더라면 그 후의 經濟學導入의 樣相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5) 俞吉濬, 『西遊見聞』, 東京交詢社, 1895年, p. 186 參照.

體系的인 西歐經濟學의 導入은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의 機關誌 『親睦會會報』(1896)와 大朝鮮獨立協會의 機關誌 『大朝鮮獨立協會會報』(1897)의 發刊以來 本格的으로 展開된다. 20世紀에 들어와 西歐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은 國家存亡의 危機와는 對照的으로 더한층 活性化되었다. 그러나 1910年 8月의 日本帝國主義에 의한 國權喪失로 말미암아 그 導入과 展開는 韓半島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日帝 植民地支配下 民族의 獨立運動의 絕頂을 이룩한 3·1運動을 契機로 韓國人에 의한 西歐經濟學의 導入과 展開는 새로운 方向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그 主要特徵을 要約하면 첫째로 1920年代부터 本格化된 社會主義 經濟學의 導入과 이를 바탕으로 한 經濟問題의 解決策構究, 둘째로 1930年代에 들어와서의 經濟史學의 確立과 一部 케인즈理論의 紹介, 끝으로 1930年 後半부터의 社會主義 經濟學의 潛在化, 日本帝國主義에의 同調와 經濟學의 親日路線으로의 旋回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西歐經濟學이 이 땅에 들어온 後 1945年에 이르기까지 60餘年間 때로는 꽃멍어리채 시들어 떨어졌고, 때로는 꽃 피우자마자 떨어지게 되었고, 또한 때로는 싹도 낳기 前에 죽어버리고 만 長征의 길을 밟아 온 歷史가 바로 韓國의 經濟學 發達史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은 크게 三編으로 나누어 構成하였다. 第1編은 西歐經濟學導入의 胎動, 第2編은 韓末의 導入經濟學, 第3編은 日帝下의 韓國人에 의한 經濟學의 動向槪觀이다. 우리나라 最初의 新聞인 漢城旬報(그後 周報)와 最初의 經濟學書(部分的이지만)라고 할 수 있는 俞吉濬의 『西遊見聞』에 나타난 經濟學論說을 一瞥한 것이 第1編의 硏究結果이다. 다음의 第2編에서는, 書誌統計上으로, 韓末의 西歐經濟學이 渡日留學生과 國內人士(엘리트)에 의해 主로 日本(極히 一部는 中國)으로부터 導入되어 온 史實과 導入經濟學과 西歐·日本經濟學의 各派와의 關係를 明白히 하고, 代表的 經濟學者로서 理論面에서는 俞承兼을, 政策面에서는 金大熙를 各各 選定하여 그들의 理論과 思想을 究明하는 것으로 하였다. 第3編에서는 日帝下의 韓國人에 의한 社會主義 經濟學의 導入(展開·終末), 經濟史學의 確立, 케인즈經濟學의 紹介 등에 限定하여 그 動向을 槪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같이 巨視的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今後, 後學의 參考가 되어, 微視的으로 프로그램을 再編成하여 좋은 成果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II. 西歐經濟學導入의 胎動

1. 漢城旬報·周報와 經濟學 關係記事

漢城旬報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最初의 新聞이고, 1883年 10月 21日에 創刊되었고, 그 뒤를 引繼받은 漢城周報는 1886年 1月 25日에 創刊되었다. 國民의 見聞을 넓히고, 大衆의 疑惑을 풀고, 商業의 利益을 助長할 것을 目的[6]으로 한 兩紙는 經濟學關係의 記事도 때때로 揭載, 그 數는 30餘篇에 達하고 있으나, 西歐經濟學의 理論體系를 갖춘 學問的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時局에 便乘한 時論的·啓蒙的 性格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特히 貨幣論과 租稅論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884年 4月 25日字 漢城旬報 第19號의 '各國國債說略'은 寶節德(H. Fawcett)의 國債論의 本質을 說明한 것으로 當時로서는 매우 進步的인 記事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國債募集을 통한 農工業의 振作과 國防力의 擴張이 緊要하고 오늘날은 國債의 世上(今日乃國債之世也)이라고 强調하고 있다.[7]

또한 漢城周報의 1886年 6月 28日字 第22號에는 '英國人口救窮說'(續稿)라는 題下에 「抹制氏之說旣於前號, 登其梗概」라는 글句로 시작하는 맬더스(T. Malthus)의 人口論의 續篇을 揭載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同周報 第21號에는 그 前篇이 揭載되었음이 確實視되나, 不幸하게도 그 日字의 同周報를 국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하여간에, 西歐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의 導入에 있어서 맬더스人口論은 비교적 일찌기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맬더스人口論 導入[8]보다도 不過 10年밖에 뒤지지 않았고, 韓國이 西歐로부터 導入한 다른 經濟學理論이나 思想보다는 20年이나 앞서 맬더스人口論이 들어 왔다는 것은 重視할 만한 史實이다.

이 자리에서는 第22號에 의해 그 內容을 보기로 한다.

맬더스時代는 急激한 人口增加에 對하여 物產이 그에 隨伴할 程度로 增加하지 못하여, 貧民의 食生活은 困難하여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맬더스의 主論은 偏見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前提, 맬더스의 論旨를 紹介하고, 反駁의 論據로 삼았다.

T.맬더스의 時代는 英國의 植民地도 적고, 外國으로의 移住도 別로 盛하지 않았으며, 機

(6) 「旬報辭」 漢城旬報(1), 1883. 10. 31; 「周報辭」 漢城周報(1), 1886. 1. 25.
(7) 漢城旬報(19), 1884. 4. 25.
(8) 日本에 있어서는 1876~7年間에 元野助六郎·大島貞益·永田健助 등에 의해 맬더스人口論이 導入되기 시작하였다.

械의 利用도 매우 稀少하여 山野의 開拓도 進展되지 않았고, 魚畜과 其他 財貨는 衣食의 供與에 不充分하였기 때문에, 人口는 많고 物產은 적어지는 結果를 가져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맬더스의 重垛·平垛의 論(幾何·算術級數論)이 出現하였을 때에는 그런대로 호응하는 者들이 많았다고 說明하고서는, 農工商業을 振興시키고, 國民이 勤勉努力하게 되면, 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機械發明도 增加되어 食糧의 걱정도 없게 된다고 論하였다. 그리고, 人口抑制論에 反對하고 結論的으로 貯蓄을 强調하는 生活對策을 말하고 있다.(9)

兩紙에 揭載된 經濟學 關係記事의 源泉은 다른 뉴스와 같이 中國·日本·英國 등의 日刊紙 또는 官報 등이었으며, 大部分은 그 出處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一部 引用出處를 明記한 點과, 文章·用語 등을 통해 볼 때, 經濟學關係의 大部分의 記事는 中國(申報·萬國公報 등)을 통해 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兪吉濬과 經濟學

近代經濟思想을 最初로 紹介한 開化思想家의 代表者格인 兪吉濬(號：矩堂)은 그의 恩師 日人 福澤諭吉(『西洋事情』, 1867)의 影響을 받아 『西遊見聞』을 著述·出刊(1895)하기에 앞서 1891年에는 稅制·地制兩議(10)를 執筆, 量田의 施行·地券發行·租稅金納을 主張하는 한편 部分的이나마 西歐社會 經濟制度를 國內에 普及하였다. 그리고 『西遊見聞』에서는 世界의 物產, 收稅하는 法規, 人民이 納稅하는 意義, 國債, 貨幣의 大本, 商業의 大本, 商業會社 등 西歐社會經濟의 一般을 많이 紹介하였다.(11) 그러나 經濟學의 理論이나 思想을 體系的으로 紹介하지는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西歐와 같이 產業을 育成시켜 近代國家를 形成하여야 한다는 데 西歐文明의 紹介目的을 두었기때문에, 그의 思想은 殖產興業이라는 넓은 意味의 重商主義的 思想體系의 一環이었지, 결코 古典派的 經濟思想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하간에 『西遊見聞』에 나타난 西歐社會 經濟制度와 그의 典型的인 殖產興業觀이 韓末에 있어서 西歐經濟學에 대한 높은 關心事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兪吉濬의 貨幣論과 租稅論만을 보는 것으로 그의 思想의 一面을 紹介하고자 한다.

(1) 貨幣의 大本

兪吉濬은 『西遊見聞』의 第10篇 「貨幣의 大本」이라는 題下에, 貨幣의 基本理論中 一部를

(9) 漢城周報(22), 1886. 6. 28.
(10)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編, 『兪吉濬全書』(一潮閣, 1971), 第Ⅳ卷所收.
(11) 兪吉濬, 『西遊見聞』, 東京交詢社, 1895, p. 556. (다음 各項目을 參照)
世界의 物產(pp. 67-84); 收稅하는 法規(pp. 181-204); 政府의 民稅費用(pp. 205-225); 國債募用(pp. 225-231); 貨幣大本(pp. 257-262); 商賈의 大道(pp. 359-375); 商賈의 會社(pp. 482-485).

紹介하였다.[12]

于先, 그는 「貨幣는 國家의 命脈이오 生民의 氣血이라 百物의 標準을 세우고, 賣買의 媒介를 行하니 그 功德은 매우 큰 것이다」라고 貨幣의 重大性을 論하고, 貨幣로서 使用되는 諸物(鹽·寶玉·貝·獸皮·茶·牛羊·銅鐵·金銀)이 標準의 役割을 다 할 수 있으나, W.S. 제본스의 說에 따라 金銀이 그 中에서도 最適한 것이라고 그 理由를 들어 說明하였다.

다음 紙幣發行의 要件으로서 「政府의 信義가 두텁고, 經濟가 確定하여 人民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들고, 紙幣發行의 濫用은 經濟의 破綻을 招來하고, 民生의 大禍를 가져오니(所謂 貨幣恐慌의 招來), 政府는 愼重을 期해 紙幣發行을 하여야 한다고 强調하였다.

끝으로 貨幣는 一國의 主權을 表現할만큼의 「大物」(Giant)이기 때문에, 그 鑄造·發行權은 國家의 獨占에 歸屬시켜야 하고, 流通貨幣는 그 標準을 何物로 定하였든지 「均一을 先務로 하고, 이미 均一하면, 또한 精하여야 되고, 均且精이면 國民이 驅使하여서 비로소 처음으로 貨幣의 道가 크게 갖추어진다」고 말하였다.

(2) 收稅法規

俞吉濬은 그의 所著『西遊見聞』의 第7編에서 '收稅ᄒᆞᄂᆞᆫ法規'[13]라는 題下에 英國의 稅法·佛蘭西 政治學士 寶利柔(P.L. Beaulieu)의 賦稅法·10餘個國의 人口와 稅額 및 每人當稅負擔 등을 들어 西歐의 稅制를 說明하고 있다.

于先, 그는 西歐諸國의 課稅가 農產物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製造工業과 貿易에 대하여서도 行하여진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英國의 稅法에 따라 關稅·物品稅 등 各種稅目을 具體的으로 紹介한 後, 오늘날의 直·間接稅를 直徵稅·代徵稅라고 呼稱하고, 그의 分類 및 兩稅間의 課稅比率에 言及하고 있다. 끝으로 租稅原則에 關한 P.L.보류의 學說을 紹介하였다.

보류의 賦稅原則을 前提로 한 그는, 國家가 課稅할 때는 「公平한 道理로써 그 恩惠를 均等하게 베풀 것은 勿論이거니, 제멋대로 仁이 缺如된 政治를 하여 全國의 規律을 擾動하는 일은 不可하다」라고 하고, 貧賤한 人民을 생각하여 保護하는 것을 優先시켜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課稅標準以下의 財產에 대한 免稅, 둘째로 農作에 必要한 家畜 등에 대한 非課稅, 세째로 生活必需品(穀物·柴炭·織布·藥劑 등)에 대한 無稅 또는 輕課稅, 네째로 不急의 用品 또는 奢侈品(酒·茶·煙草·비단 등)에 대한 重課稅를 主張하였다.

(12) 兪吉濬, 同上, pp. 257-262.
(13) 兪吉濬, 同上, pp. 181-204.

III. 韓末의 導入經濟學

1895年은 經濟學導入이란 觀點에 局限하여 보더라도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에 高宗이 宣布한 洪範14條 宣言(1月)과 敎育立國勅書(2月)는 近代學校의 設立을 촉진시켜 經濟學講義가 各級學校에서 시작되었고, 官費留學生의 大量派日(3月)은 많은 經濟學專攻의 新進人士를 排出케 하였고, 그들은 留學生團體의 機關誌[14]와 歸國後에는 國內雜誌를 통해 西歐經濟學을 紹介·啓蒙하였다. 한편, 國內엘리트들은 韓末의 難局에 處하여 自主獨立과 國權回復을 主張하고, 自由民權의 擁護와 伸長, 敎育·產業의 發達을 促進하기 위한 救國的·啓蒙的인 性格을 띤 各團體의 機關誌[15]나 個人發行의 雜誌[16]에 많은 經濟學關係의 論文을 寄稿하여 國民의 敎育·啓蒙에 힘썼던 것이다.

本編에서는 먼저 韓末經濟學의 特徵을 書誌統計를 통하여 槪觀하고, 다음에 導入經濟學의 內容을 分析한 然後에, 代表的 經濟思想家로서 兪承兼·金大熙 兩人의 理論·思想·政策을 詳細히 보기로 한다.

1. 書誌統計上으로 본 韓末經濟學의 特徵

韓末의 經濟學關係의 著書·譯書는 그 數가 25餘篇, 論文은 漢城旬報·周報의 論文을 包含하여 260餘篇에 달한다(未完). 또한 著者·譯者는 30餘名, 論文發表者는 160餘名이다. 이것들을 年度別, 分野別, 留學·非留學엘리트別로 나누어 分析하여 보면 〈表 1〉과 같이 되는데, 이에 의하여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883~87年間에 있어서는 漢城旬報·周報의 記事로서 理論과 韓國經濟論이 發表되었다.

둘째, 經濟學의 理論分野의 著書·譯書를 出刊한 留學生과 國內人士의 數는 거의 같고, 論文發表數는 留學生側이 壓倒的으로 많으나, 貨幣金融論에 있어서는 兩側이 같은 數로 論文을 發表하였다.

세째, 財政學과 韓國經濟論의 著書는 主로 留學生에 의해 著述되었고, 韓國內 人士는 단지 租稅에 關한 著書『韓國稅制考』와 論文을 發表하였을 뿐이다.

네째, 韓國經濟論(一般論·農工商併進論·工商主義論·農本主義論 등)에 관한 論文은 留

(14) 親睦會會報(1896), 太極學報(1906), 共修學報(1907), 大韓留學生會會報(1907), 同寅學報(1907), 洛東親睦會學報(1907), 大韓學會月報(1908), 大韓興學報(1909).

(15) 大朝鮮獨立協會會報(1896), 大韓自强會月報(1906), 西友·西北學會月報(1906), 法政學界(1907), 湖南學報(1907), 大東學會月報(1908), 大韓協會會報(1908), 畿湖興學會月報(1908) 등.

(16) 少年韓半嶋(1906), 夜雷(1907), 少年(1908).

〈表 1〉 書誌統計上으로 본 韓末經濟學(25個學會·啓蒙團體雜誌)

分野別	著·譯書·論文 \ 年度	1883~1887	1895	1897	1906	1907		1908		1909		1910		合計	
		論文	著書	論文	論文	著·譯書	論文	著·譯書	論文	著·譯書	論文	著·譯書	論文	著·譯書	論文
經濟學一般	留學生	—	1	3	5	5	8	—	14	1	6	2	4	9	40
	國內人士	—	—	—	1	5	9	5	5	1	8	1	1	12	24
	漢城旬報·周報	1	—	—	—	—	—	—	—	—	—	—	—	—	1
貨幣金融論 保險論	留學生	—	—	—	—	1	1	—	2	—	2	—	—	1	5
	國內人士	—	—	—	—	1	—	—	5	—	—	—	—	1	5
	旬報·周報	5	—	—	—	—	—	—	—	—	—	—	—	—	5
財政學 租稅論	留學生	—	—	—	3	1	2	—	2	—	—	—	—	1	7
	國內人士	—	—	—	—	—	—	—	5	1	—	—	—	1	5
	旬報·周報	11	—	—	—	—	—	—	—	—	—	—	—	—	11
人口論	留學生	—	—	—	—	—	1	—	2	—	—	—	—	—	3
	國內人士	—	—	1	—	—	—	—	—	—	—	—	—	—	1
	旬報·周報	4	—	—	—	—	—	—	—	—	—	—	—	—	4
韓國經濟論 其他	留學生	—	—	1	5	1	28	—	31	—	11	—	6	1	82
	國內人士	—	—	4	7	—	15	—	16	—	10	—	5	—	57
	旬報·周報	10	—	—	—	—	—	—	—	—	—	—	—	—	10
合計	留學生	—	1	4	13	8	40	—	51	1	19	2	10	12	137
	國內人士	—	—	5	8	6	24	—	31	2	18	1	6	14	92
	旬報·周報	31	—	—	—	—	—	—	—	—	—	—	—	—	31
總計		31	1	9	21	14	64	5	82	3	37	3	16	26	260

學生·韓國內 人士에 의해 다같이 活潑하게 發表되었다.

다섯째, 著書·譯書 및 論文의 發表年度를 볼 때, 經濟理論(財政學 包含)은 1906年까지는 留學生들이 主導하였으나, 韓國經濟論은 國內人士에 의해 比較的 일찍부터 發表되었다.

여섯째, 著書·譯書의 發刊, 論文의 發表는 1907年부터 活潑化되어 1908年에 絕頂에 이르렀고, 1909年부터는 急減하였다. 特히 韓國經濟論의 發表에 있어서 急減이 심하였다.

2. 導入西歐經濟學과 西歐經濟學의 各派

(1) 韓末經濟學의 聯關表

韓國最初의 雜誌인 大朝鮮日本留學生親睦會『親睦會會報』(17)의 1897年 9月 第5號에 日本留學生이었던 魚瀕善과 吳聖模는 各各 '經濟學槪論'과 '分業과 合力의 關係'란 論題下에

(17) 1895年 第1次 官費留學生으로 日本慶應義塾에 入學한 멤버를 中心으로 同年 4月(陰) 留學生親睦會를 組織, 世界萬般의 政治的 變化와 歷史의 沿革을 略述하여 一般國民의 耳目을 열고, 精神을 開發할 目的으로,『親睦會會報』를 1895年 10月(陰)에 創刊하였다.

〈表 2〉 西歐經濟學 各派와 導入經濟學(理論)

學派別	著·譯書, 論文別 / 導入者와 導入年度 / 西歐·日本 經濟學者 및 中國	著·譯書							論文						
		『經濟學』	兪致衡 著	『經濟學』	申海應	元永常 著	『經濟原論』	金均雨 譯	『普通經濟學』	李弼善 譯	『最新經濟學』	朱定均 著	朴承鎭	『經濟通論』	大韓帝國學部 編	『經濟教科書』	兪吉濬 兼著
		1907		1907		1907	1907		1907		1908		1908			1910	
英國自由主義學派	A. Smith	///		//		//	/		//		//		//		/	//	
	T.R. Malthus	///		//		//	/		//		//		//		/	//	
	D. Ricardo	///		//		//	/		//		//		//		/	//	
	J.S. Mill	///		//		//	/		//		//		//		/	//	
	H. Fawcett														/	//	
	W.S. Jevons	///		//		//	/		//		//		//		/	//	
	J.R. McCulloch			//												//	
	A. Marshall			//											/		
佛·自	J.B. Say	///		//													
	P. Leorey-Beaulieu												//		/	//	
墺	C. Menger												/			/	
獨逸歷史學派 講社義派	F. List	/		//		///		//		//		//	///			//	
	W. Roscher	/		//		///		//		//		//	///			//	
	A. Wagner	/		//		///		//		//		//	///			//	
	A. Held			//									///				
	G.F. von Shönberg			//									///			//	
伊·歷	Luigi Cossa												///			//	
社會主義學派	K. Marx	/		/								/	/			/	
	J.C. Rodbertus	/		/								/	/			/	
	F. Lassalle	/		/								/	/			/	
日·自	田尻稻次郎	///		//					//				//			//	
日本新歷史學派	和田垣謙三			//		///			//				//			//	
	持地六三郎												///				
	田島錦治			///													
	河津暹								///								
	金井延												//			//	
	中國																

學派別	著·譯書, 論文別 / 導入者와 導入年度 / 西歐·日本 經濟學者 및 中國	論文								
		『經濟學』	魚瑭	『分業論』	吳聖模	『經濟學』	兪承兼	『恐慌論』	全永爵	『經濟學』
		1897		1897		1906		1906		1907
英國自由主義學派	A. Smith	///				//				
	T.R. Malthus	///								
	D. Ricardo	///				//				
	J.S. Mill	///		///		//		///		
	H. Fawcett					//				
	W.S. Jevons									
	J.R. McCulloch	///								
	A. Marshall									
佛·自	J.B. Say									
	P. Leorey-Beaulieu									
墺	C. Menger									
獨逸歷史學派 講社義派	F. List									
	W. Roscher					//				///
	A. Wagner					//				///
	A. Held									
	G.F. von Shönberg									
伊·歷	Luigi Cossa									
社會主義學派	K. Marx									
	J.C. Rodbertus									
	F. Lassalle									
日·自	田尻稻次郎									
日本新歷史學派	和田垣謙三					//				///
	持地六三郎									
	田島錦治									
	河津暹									
	金井延					//				///
	中國									

學派別	著·譯書, 論文別 / 導入者와 導入年度 / 西歐·日本 經濟學者 및 中國	論文							
		『經濟學』	金成濟	『經濟學』	尹定夏 譯	『生利分利論』	李鍾濬 譯		
		1907		1908		1908			
英國自由主義學派	A. Smith				//		///		
	T.R. Malthus								
	D. Ricardo								
	J.S. Mill				//		///		
	H. Fawcett								
	W.S. Jevons								
	J.R. McCulloch								
	A. Marshall				//				
佛·自	J.B. Say								
	P. Leorey-Beaulieu								
墺	C. Menger								
獨逸歷史學派 講社義派	F. List								
	W. Roscher								
	A. Wagner								
	A. Held								
	G.F. von Shönberg								
伊·歷	Luigi Cossa								
社會主義學派	K. Marx								
	J.C. Rodbertus								
	F. Lassalle								
日·自	田尻稻次郎								
日本新歷史學派	和田垣謙三								
	持地六三郎								
	田島錦治								
	河津暹								
	金井延								
	中國		///				///		

〔參考〕 ///：重點的으로 導入(以下同).
//：折衷的으로 導入.
/：紹介에 그침.
自：自由主義學派(以下同).
歷：新歷史學派(以下同).
墺：墺地利學派.

〈表 3〉 西歐經濟學 各派와 導入經濟學(貨幣金融論·財政學)

學派別	著·譯, 論文別 / 導入者·導入年度 / 西歐·日本의 經濟學者	著書·譯書 『元常 財政學』 著 1907	著書·譯書 『李善 貨幣論』 譯 1907	著書·譯書 『劉文相 銀行論』 譯 1910	論文 「崔夏 租稅論」 1906	論文 「李漢卿 銀行과 經濟」 1906	論文 「尹照 財政學歷史」 譯 1907	論文 「崔乘 日本貨幣制度」 譯 1908
英·古典學派	A. Smith		///					
	A.D. Macleod		///	///				
	H. Fawcett	///		///				
	W.S. Jevons		///	///				
	W. Bagehot		///	///				
	C.F. Bastable				///		///	
佛·自	P.L. Beaulieu	///					///	
	M. Chevalier		///	///				
	M. Mirabeau		///					
獨·新歷	W. Roscher	///					///	
	A. Wagner	///					///	
	G.F. von Shönberg	///					///	
伊·歷	Luigi Cossa	///					///	
日·自	福澤諭吉							
	小手川豊次郎		///					
	田尻稻次郎	///		///			///	
	佐野善作							///
日·歷	和田垣謙三	///					///	
	高野岩三郎	///					///	

〔參考〕 ///: 重點的으로 導入(以下同).

古典派 經濟學을 紹介하였다. 또한 國內에서 發刊된 雜誌로서 最初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1897年 3月 第9號에는 '地球人數食糧論'이란 題下에 T.맬더스의 人口論을 紹介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이 經濟學에 관한 論文이 散發的으로 發表되었으나, 本格的인 導入은 1900年을 前後하여 歸國한 渡日留學生과 國內譯官 또는 愛國엘리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導入形態와 量質은 各導入者에 따라 달리하였다. 多樣하게 導入된 西歐經濟學을 經濟理論과 貨幣金融論·財政學으로 二分하여 西歐의 經濟學各派(參考로 日本의 經濟學各派를 包含)와 關聯시켜 본 하나의 聯關表(Matrix form)를 作成하여 보기로 한다(〈表 2〉와 〈表 3〉). 勿論, 表의 縱欄에서 보는 各派別 學者는 當時 引用된 主要한 代表的인 人物들이고,

橫欄에 보이는 韓國의 主要導入者와 關聯시켜 본 것이다. 縱欄에 나타나 있는 學者外에도 많은 西歐 및 日本의 經濟學者의 理論이 導入된 것은 두말할 것 없다.

(2) 自由主義 經濟學派와 導入經濟學

1895年 以後 1900代初에 이르기까지는, 前述한 胎動期에 있어서와 같이, 主로 英國의 自由主義 古典派 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이 初步的으로 그리고 非體系的으로 導入되었다.

첫째로, 魚瀔善과 吳聖模의 論文은 自由主義 經濟學派의 理論을 紹介한 것으로 前者는 A. 스미드, D. 리카도, J.S. 밀, J.R. 맥크룩크의 理論을 中心으로, 富·生產·資本·消費 등에 대한 槪念을 紹介하였고, 後者는 J.S. 밀의 所謂 複雜分業中 職業的 分業에 限定시켜 說明하였다.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地球人數食糧論'이 T. 맬더스를 紹介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둘째로, 貨幣論·銀行論은 著書·譯書·論文이 다같이 自由主義 經濟學者의 理論, 特히 W.S. 제본스의 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紹介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美國·佛蘭西·日本의 自由主義 經濟學者의 學說에 依存하였다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세째로, 그 밖의 古典派 經濟學의 導入者들은 다른 學派(主로 新歷史學派)의 理論을 多少나마 紹介하면서 主로 英國·日本의 自由主義 經濟學者의 學說을 많이 引用하였다.

(3) 新歷史學派=講壇社會主義派와 導入經濟學

1900年代에 들어 와서는 體系的인 西歐經濟學의 導入이 本格化하였다. 그것이 獨逸의 新歷史學派=講壇社會主義派의 理論과 思想으로 武裝되어 出發한 點은 韓國의 經濟學 導入史上 劃期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經濟理論에서 1906年의 兪承兼[18]과 1907年의 薛泰熙[19]의 論文自體는 經濟學의 序論에 속한 것에 不過하였지만, 다같이 獨逸의 新歷史學派의 泰斗 W.G.F. 롯셀와 日本의 同學派의 巨頭 金井 延의 說을 引用하여 理論을 展開한 點에 있어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 勿論, 兪는 部分的으로 英國의 自由主義 古典派의 理論을 紹介하고 있다.

둘째로, 財政學과 租稅論의 導入에 있어서 元應常[20]과 尹成熙[21]는 다같이 日本의 新歷史學派學者인 高野岩三郎의 著書를 中心으로 著述 또는 飜譯하고 있기때문에, 自然히 獨逸·伊太利·日本의 新歷史學派學者의 影響을 主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18) 『少年韓半嶋』(2), 1906.12; 同 (3), 1907. 1; 同 (4), 1907. 2; 同 (5), 1907. 3.
(19) 『大韓自强會月報』(8), 1907. 2; 同 (9), 1907.3; 同 (11), 1907.5; 同(12), 1907.6.
(20) 元應常, 『財政學』, 申海永校閱, 1907年前後.
(21) 法政學界(15), 1908.8. 資料出處를 밝히지 않았으나, 日人 高野岩三郎의 『財政學』의 第二章第三款「財政學의 歷史」를 飜譯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4) 導入經濟學의 類型

前述한 바와 같이 多樣한 導入形態를 밟아 온 우리나라의 西歐經濟學은 大體的으로 다음의 세가지의 類型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① 第1類型

自由主義 古典派 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을 中心的 核으로 삼고, 新歷史學派=講壇社會主義 派理論과 思想을 副次的으로 考慮한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著·譯書로서는 兪致衡講述·申海永校閱의 『經濟學』, 李弼善譯 『貨幣論』[22], 劉文相譯 『銀行論』[23]이 그 代表作이다.

둘째로 論文은, 全永爵·尹定夏·李鍾濬·崔錫夏 등에 의한 것들이다.

② 第2類型

第1類型과는 反對로, 新歷史學派=講壇社會主義派의 理論과 思想이 中心的 核을 이루고, 이에 自由主義 古典派의 理論과 思想이 副次的으로 紹介된 것이다.

첫째로 著·譯書로서는 金雨均譯의 『經濟原論』[24], 李炳台譯 『經濟學教科書』[25], 元應常의 『財政學』 및 大韓帝國學部編纂의 『經濟通論』[26]들이며, 後者는 C.멩거의 理論도 一部紹介 되고 있다는 特色을 갖고 있다.

둘째로 論文發表者로서는 前述의 兪承兼·薛泰熙 以外 尹成熙가 있다.

③ 第3類型

自由主義 古典派와 新歷史學派=講壇社會主義派 兩派의 理論과 思想을 適宜, 折衷하여서 獨自的인 理論體系를 樹立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中에는 新古典派의 元祖 A.마아샬와 墺地利學派의 C.멩거의 理論까지도 매우 僅少하나마 紹介한 理論과 思想들이다.

이에 屬하는 것으로는, 元應常·申海永의 『經濟學』[27], 李弼善譯의 『普通經濟學』[28], 朴承鑣·朱定均의 『最新經濟學』[29], 兪承兼의 『最新經濟教科書』[30] 등이다.

이러한 著書는 로드베르투스(J.C. Rodbertus), 맑스(K. Marx), 라사알(F. Lassalle) 등의

(22) 原著는 小手川豊次郎講述 1900年發刊의 『貨幣論』이다.
(23) 原著는 田尻稻次郎의 1898年發刊의 『銀行論』(1, 2卷, 1册)이다.
(24) 原著는 和田垣謙三의 1901年發刊의 『經濟學教科書』이다.
(25) 注 (28)과 같음.
(26) 持地六三郎, 『經濟通論』, 富山房, 1896年, 參考.
(27) 田島錦治, 『經濟學』, 東京法學院發行, 1897年, 參考.
(28) 原著는 河津 暹 『普通經濟學教科書』, 1901年.
(29) 朴承鑣·朱定均, 『最新經濟學』, 兪承兼校閱, 普文社, 1908年.
(30) 兪承兼, 『最新經濟教科書』, 唯一書館, 1910年.

社會主義思想과 理論을 紹介하고 있지만, 全體的으로 否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兪致衡은 社會主義가 實施되면, 零細民의 一部는 人口增加의 抑制보다는 오히려 人口增加를 招來하여, 一般人民의 勞動은 自家充足用에 그치고 國家社會全體의 富는 減少되고, 零細民의 困難은 日益 增加하여 그 度를 높이게 되며, 따라서 社會主義는 결코 平均上昇의 法으로 되지 않고, 平均下降의 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結論을 내렸다.(31)

둘째로, 元應常·申海永은 完全共產主義(Ganze Kommunismus)와 學問的 社會主義(Wissenschaftliche Socialismus)를 私的 所有權에 反對하는 學說이라고 紹介한 然後, 이와 같은 主義를 信奉하는 國家는 國民大多數가 經濟上의 進步에 대한 適當한 判斷力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進步를 期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私有財產制下의 經濟보다 進步된 것은 아니라고 斷定하였다.(32)

세째로, 朴承鑌·朱定均은 當時의 다른 著·譯書에 比해 훨씬 많은 紙面을 割當하여 社會主義論을 紹介하였으며, 그 實行이 不可하다는 것을 거듭 强調하였다. 그들은 個人主義와 社會主義를 對照시키면서 論하고, 結局 社會主義는 個人의 利己心(人類最高觀念)과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의 進步와 活動을 遲延시키는 理由로 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의 理想的 國家는 架空의 夢想에 지나지 않는 實行不可能한 것이라고 强調, 社會改良主義에 同調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은 뒤에서 보게 될 그들의 恩師 兪承兼과도 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33)

이같이 社會主義에 全面 反對의 立場을 취한 韓末의 經濟學導入者가 提示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들은 自由主義에 立脚한 個人의 私利와 社會公益에 符合調和하는 社會一般의 幸福을 保護成就하기 위해, 中產層의 增加를 위한 諸方策을 내세웠던 것이다. 즉 從業員持株制(共同法이라고 稱하였음)를 爲始하여, 消費組合, 社員住宅建設, 共同療養法, 資金貸給法 등을 主張한 사람도 있었고(34), 相續稅의 制定, 租稅累進賦課法, 勞動者保護法, 勞動者保險制度 등을 主張한 분도 있었다.(35)

이와 같이 볼 때, 1900年代에 들어와서 本格的·體系的으로 導入된 經濟學은, 極히 一部를 除外하고서는, 「富庶·富國」을 爲한 經濟學이 그 主流를 形成하였다 말할 수 있을 것 같

(31) 『兪致衡』, pp. 129-132 參照.
(32) 『元應常·申海永』, pp. 87-88 參照.
(33) 『朴承鑌·朱定均』, pp. 16-18 參照.
(34) 兪致衡, 兪承兼 등.
(35) 朴承鑌, 朱定均 등.

다. 즉, 社會主義派의 理論을 排除하면서, 新歷史學派=講壇社會主義派를 主軸으로 한 社會政策學會(獨逸·日本)會員의 理論·思想·政策을 받아들여, 當時의 韓國經濟의 特殊性——貧益貧·富益富의 惡循環——과 調和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理論的 基礎로서 앞으로의 資本主義經濟의 生成에 對備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다. 特히 日本을 通한 導入關係에 있어서는 日本의 西歐經濟學 導入過程과, 日本에 있어서의 最初의 經濟學敎育의 場이었던 東京帝國大學의 經濟學各派와 緊密한 關係를 갖고, 그것들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았다는 歷史的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고 본다.(36)

그러나 不幸하게도 迂廻的으로나마 日本으로부터 導入되어온 西歐經濟學마저도, 1910年 8月의 韓日合併以後 10餘年間 假死狀態에 놓이게 되었고, 그 蘇生은 1920年代에 들어서 부터 徐徐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 代表的 經濟思想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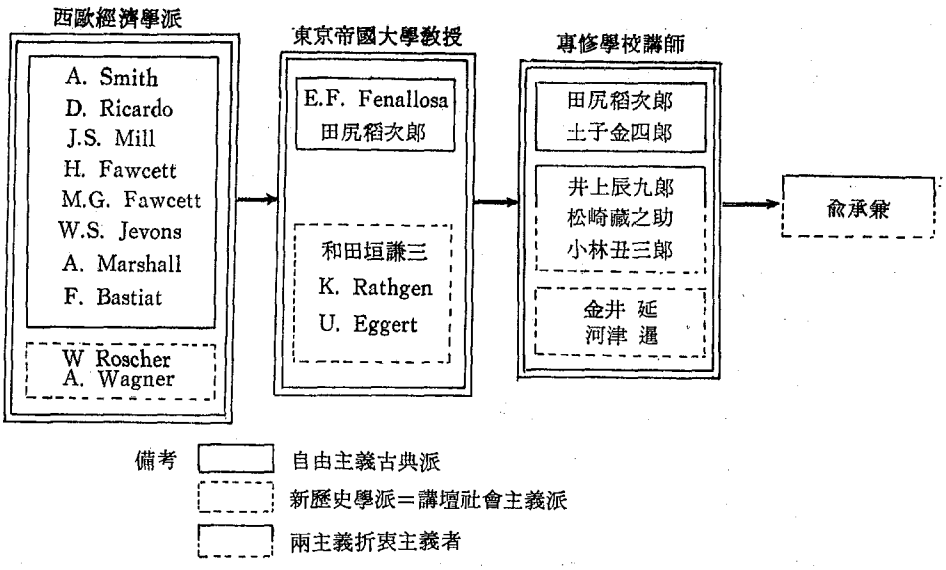
前述한 많은 人士가 韓末의 西歐經濟學導入에 크게 貢獻하였지만, 그 中에서도 筆者의 見解로서는 韓末의 代表的 經濟思想家로서 兪承兼·金大熙 두사람을 들고 싶다. 그 理由는 두사람 다같이 日本留學後 歸國하여, 그들의 論文·著書를 통해 理論·思想·政策을 展開, 國民의 啓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敎育에도 從事하여 後進養成에 盡力하였다는 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兪承兼은 經濟學理論을 中心으로 論文·著述·敎育을 통해 國民을 啓蒙하였을 뿐만 아니라 弟子들의 著書를 校閱하였고, 金大熙는 商學徒로서 弱冠28歲때 祖國의 未來를 憂慮하여 『二十世紀朝鮮論』이라고 題한 日本帝國主義者들의 눈에 거슬리는 力作을 著述하여 國民啓發에 貢獻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理由로, 經濟學 理論家로서의 兪承兼, 未來의 敎育·産業·經濟政策家로서의 金大熙를 紹介하고자 한다.

(1) 兪承兼論

① 兪承兼의 理論·思想形成過程

(36) 韓末의 西歐經濟學의 導入에 있어서 當時의 渡日留學生의 役割은 매우 컸던 것이다. 導入史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그들 留學生의 留學前後의 日本의 經濟學의 動向에 관해 若干言及하기로 한다.

西歐經濟學은 1860年代 처음으로 日本에 導入되었다. 그것은 英國의 自由主義 古典派 經濟學이었으나, 그 後 1880年代에는 獨逸의 新歷史學派 經濟學이 擡頭되었다. 한편 1890年代에는 淸日戰爭後의 勞資對立에 의한 맑스主義·社會主義思想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같은 三大經濟學의 各派는 當時 後進性을 免치 못하였던 日本資本主義經濟를 背景으로 하여 思想的 對立과 論爭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1880年代後半부터는 日本經濟學은 新歷史學派에 의하여 거의 獨占되다시피 되었고, 그의 中心人物로서 役割을 한 사람들은 1896年 創立된 日本社會政策學會의 會員들이었고, 그 主役은 大體로 東京帝國大學卒業後 獨逸留學을 마치고 歸國한 學者들이었다. 그들은 政策으로서는 自由·社會의 兩主義에 對抗·對立하는 것을 일삼았고, 經濟學理論으로서는 歐美諸國의 先進學說을 折衷하여 新歷史學派理論을 體系化하려 하였다.



〈그림 1〉 兪承兼의 思想·理論形成過程

1895年 派日官費留學生으로 慶應義塾과 專修學校(現 專修大學)을 卒業한 兪承兼[37]은 公職에 있을 때는 淸廉한 淸吏로서 봉사하였고, 校壇에서는 弟子를 學友라고 稱하면서 사랑의 바탕에서 學徒를 길러 냈고, 交友에서는 天性의 瀟白溫厚함을 나타냈다. 그리고 學問에 있어서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서 우리나라 近代化를 위한 提言과 經濟學理論을 紹介하고 國民의 啓蒙에 全力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兪承兼의 經濟學修學이 全面的으로 專修學校에서 이루졌기 때문에, 同校 敎授陣과 關係시켜 理論·思想의 形成過程의 그림을 그려 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이 그림에 따르면, 兪承兼의 經濟理論과 思想의 形成에 直接·間接의 影響을 미친 日人經濟學者는 田尻稻次郎·和田垣謙三의 두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田尻는 1881年부터, 和田垣는 1884年부터 各各 東京帝國大學의 經濟學講義를 擔當하였기 때문에, 1884年에 同大學을 卒業한 土子金四郎이 田尻만의 影響을 받았고, 나머지 專修學校의 經濟學敎授들은, 山本悌二郎를 除外하고서는, 모두 田尻·和田垣 兩人의 影響을 直接받았던 것이다. 그 結果, 그들의 一部는 自由主義와 新歷史學派의 折衷主義者로서, 또한 一部는 純粹한 新歷史學派

(37) 兪承兼(號：東隱)의 主要經歷
1906～1910 度支部主事·事務官·書記官 歷任
1905～1908 普成專門學校 講師·農商工學校 敎官
1911　　德興·井邑郡守 歷任
1912～1915 漢城銀行 平壤·大田支店長.

=講壇社會主義者로서 兪承兼의 理論·思想의 形成에 크게 作用하였을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결국 兪의 理論과 思想은 自由主義와 新歷史學派의 折衷主義者的인 立場을 취하면서 展開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兪承兼의 經濟理論

兪承兼은 1906年에서 1907年에 걸쳐 『少年韓半島』에 經濟學의 基礎槪念에 관한 解說을 한 後, 그의 學問의 發展的 修正을 加하여 1909年 9月에 『最新經濟敎科書』를 脫稿, 學部의 檢定을 거쳐, 翌年 5月에 出版하였다. 그는 例言 第二項에서 「本書는 一般經濟思想의 啓發을 目的함으로써, 理論學說에 拘泥치 아니하고 實用을 專主함이라」[38]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著述에 있어서, 그는 英國 古典派와 獨逸 新歷史學派의 兩理論을 折衷하는 過程에서 取捨選擇을 自由自在로 한 것이다. 例를 들어 보기로 하자.

第一, 兪는 經濟學의 定義를, J.S. 밀을 代表로 하는 學說이 財貨를 主體로, 人을 客體로 하는 것과는 反對로, 人을 主體로, 財貨를 客體로 하는 獨逸의 新歷史學派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렸다.

"經濟學이란 社會와 國家를 組織한 人類의 經濟上에 관한 모든 現象을 包括·成立시키는 原理原則을 硏究하는 學問이다." [39]

그리고, W.G.F.롯셀流의 4分法을 採擇, 生產·交易·分配·消費의 順으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第二, 生產의 定義에서는, 古典派의 A.스미드流에 따라, 有形財의 生產에 限定시켰고, 資本은 古典派의 밀, J.R.맥크룩크 以外에 롯셀의 說도 統合하여 把握하고서는, 資本의 種類는, 롯셀에 따라, 有形·無形으로, 스미드, 밀에 따라 固定·流通으로 各各二分하였다.

第三, 分業의 利益에 관해서는 스미드의 說明을 中心으로 紹介하고서는, 그의 種類는 資本에 있어서와 같이 롯셀과 밀의 學說을 混合하여 說明하였다.

第四, 生產論에서는, 自由競爭을 經濟發展에 必要한 것이라고 主張하는 한편, 分配論에서는, 社會主義(共有制度)에 反對하고, 社會政策을 主張하고 있다.

第五, 貨幣論의 敍述에 있어서는 主로 W.S. 제본스의 說에 따라 說明하고 있다.

第六, 地代論에서는 D.리카도의 絕對地代說만을 紹介하였고, 賃金基金說은 T.맬더스와 밀에 따라 說明하고 있다.

第七, 財政論에서는 P.L.보류등의 說에 따라 公共的·私的 經濟의 區別을 紹介하고, 租

(38) 兪承兼, 『最新經濟敎科書』, 唯一書館, 1910年, 例言參照.
(39) 同上, p. 10.

稅原則은 A. 와 그너의 四原則中 行政上의 原則을 除外한 3原則(財政上·經濟上·公正上의 原則)만을 說明하고 있다.

③ 兪承兼의 經濟思想

前項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兪의 理論形成에 있어서 크게 影響力을 미친 專修學校의 學風은 그대로 그의 思想形成에도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兪가 專修學校에서 배운 自由主義 思想과 社會改良主義 思想을 自己나름대로 變化시키려고 한 點을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折衷主義者的인 面貌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本論에서는 그의 自由主義 思想과 社會改良主義 思想을 考察하고, 近代化思想에 聯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의 因時制宜論을 보기로 한다.

(I) 自由主義·社會改良主義 思想

兪가, 勞動의 自由와 營業의 自由가 없는 奴隸社會는 經濟發展에 支障을 招來하고, 自由競爭의 實行如否가 經濟社會의 發達如何를 觀察하는 標準이 된다고 斷定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思想의 根底에는 自由勞動·自由營業·自由營利의 自由主義 思想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自由競爭에는 經濟恐慌의 原因, 大企業의 獨占과 勞動者의 同盟罷業, 貧富隔差의 擴大등 여러가지 弊는 있으나, 經濟社會에 미치는 利益은 훨씬 크다고 말하였다.(40) 한편 貿易의 自由·保護主義에 대해서는, 一國의 經濟進步의 程度, 國土의 位置, 產業의 適否 등을 愼重히 硏究하여 利害得失을 判斷, 兩主義를 併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1) 그리고, 社會主義 思想에는 反旗를 들고, 自由資本主義가 經濟社會의 發達의 根基가 된다고 再三 强調하고서는, 만일 그와 같은 資本主義 諸制度가 廢止된다면 누가 그 才幹과 識見을 發揮하여서 生產에 從事勉勵할 것인가라고 反問을 던졌다.(42)

그러나, 自由資本主義 經濟下의 富益富·貧益貧의 社會現象에 대해서는, 兪는 看過하지 않았던 것이다. 1908年 6月 21日에 있었던 法學協會(43)主催 討論會에서 貧富의 隔差에 의해 惹起되는 社會의 不平等으로 因한 政治·經濟上의 社會問題는 各方面으로부터 硏究되어 是正될 必要가 있지만, 租稅面에서는 A.와그너의 說을 引用, 累進稅主義의 採用以外에 方法이 없다고 斷言하였다.(44) 그의 著書『最新經濟敎科書』에서도, 社會政策과 利潤分配法(共同法)을 紹介하였다.

(40) 同上, p. 40.
(41) 同上, p. 73.
(42) 同上, p. 77.
(43) 政治·法律·經濟의 學理硏究를 振興할 目的으로 1908年 3月 15日創立.
(44)『法學協會雜誌』(1-1), 1908. 11.

(Ⅱ) 因時制宜論——近代化思想

兪承兼의 近代化思想은 儒人 특히 上流社會의 慕古心(聖人을 思慕하는 데 있어서 그 道를 지키지 않고, 그 事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批判을 통하여 알 수 있다.(45)

財貨의 生産을 奬勵하고, 財貨의 使用을 適宜하게 하는 것이 人民을 平安하게 하는 道라는 것은 夏·殷時代以來 내려온 것이고, 그것은 現今에도 다를 바 없으나, 時代의 變遷에 따라 政策이 變動하는 것은 當然하고, 옛 君子도 因時制宜(時勢에 따라 制度를 바꾸는 것)에 의하여 그러한 道를 걸어 왔다. 그런데, 韓國의 上流社會 즉 儒人階級層은 慕古心에 사로잡혀, 오늘날에 適當한 措置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悲境에 빠졌다고 斷言하였다.

이와 같이 國家가 悲境에 直面한 因果關係를 上流社會의 不當한 慕古心에 있다고 한 것은 그의 近代化思想을 말하여 주고 있다. 萬一, 그가 長壽하였더라면(41歲 死亡), 必然的으로 近代化理論을 展開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飛躍일 것인지? 그의 因時制宜의 主張은 所謂 오늘날의 祖國近代化論의 胎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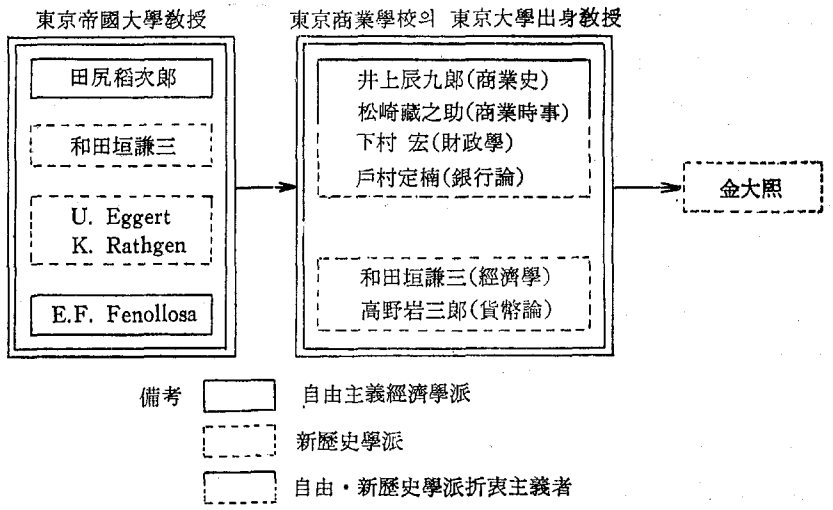
한편, 그는 『中等萬國史』(46)를 著述함에 있어서, 世界文明論을 많이 다루었고, 特히 最近世에 있어서의 文明論——應用科學의 範圍擴大로 外觀上 世界는 縮少化되고, 各種機械의 發達로 人力에 代身하여 製造工業의 發達을 招來하였다는 文明論——을 詳論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腦裏에는 祖國近代化의 執念, 즉 因時制宜가 潛在하지 않았던가 한다.

(2) 金大熙論

① 金大熙의 思想形成過程

金大熙(47)는 弱冠 17歲때 官費留學生에 拔卓되어 渡日, 慶應義塾의 普通科를 거쳐 1897年 1月에 私立東京商業學校(現 東京學園高等學校)에 入學, 1900年 3月 卒業한 後 歸國하였다. 慶應義塾에 入學한 다른 渡日留學生들과 같이 慶應義塾에서는 日本語와 教養科目을 履修하였을 뿐, 그의 經濟學 및 商學의 修學은 主로 東京商業學校에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同校의 講師陣은 創立以來 著名한 學者(東京帝國大學과 各專門學校教授)에 의해 構成되어 있었

(45) 「讀經濟書嘆儒者之現狀」, 『大東學會月報』 (3), 1908. 4.
(46) 兪承兼編述, 『中等萬國史』, 唯一書館, 1909年.
(47) 金大熙(號 : 大昏子)의 主要略歷
1900~3 樂英學校教師
1904~6 官立農商工學校教官
1909 簿記日語傳習所經營
1910 學部編輯官補
1911~12 普成專門學校講師.
그 後의 行方은 모른다. 1945~6에 共產黨大會派의 一員으로 活躍한 金大熙가 同一人인지 同名異人인지는 調査中.



〈그림 2〉 金大熙의 思想·理論形成過程

다.[48] 뿐만 아니라 金大熙가 入學하였던 해부터는, 1884年以來 東京帝國大學의 經濟學教授이며, 當時 日本의 新歷史學派의 巨頭이기도 한 和田垣謙三가 校長職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自然히 그의 弟子들이 多數 出講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金大熙의 思想形成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影響力을 미쳤던 日本人의 教講師들의 系譜와 그들의 擔當科目을 보는 것도 一助가 되지 않는가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兪承兼과는 달리, 金大熙는 主로 新歷史學派의 巨星들(거의 大部分이 日本社會政策學會會員)과 接觸하였고 그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和田垣의 影響을 直接·間接으로 받음으로써 當時의 日本經濟學界의 支配的 勢力인 後日의 社會政策學會會員들의 影響을 받아왔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二十世紀朝鮮論』[49]

(I) 出版背景

金大熙는 本書의 出版에 앞서, 雜誌 『夜雷』에 韓國의 産業經濟의 進步에 관한 論을 連載한 바 있다.[50] 그것은 日本이 韓國의 外交權을 奪取한 乙巳條約後, 大韓帝國이 徐徐히 日本帝國主義者의 手中에 들어 가고 있는 것을 注視하면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같은

(48) 澁木直一編, 『東京商業學校五十年史』, 1939年.

(49) 金大熙, 『二十世紀朝鮮論』, 發行人 崔炳玉, 1907年. 本書가 朝鮮總督府圖書館時代 祕密書籍으로 取扱되었다는 것은 現 韓國國立中央圖書館所收의 本書에 祕라는 마크가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數十節의 主要文章에는 日本語의 토를 달아 당시 日本帝國主義者들이 本書를 檢討한 자국이 歷歷히 남아 있다.

(50) 「勸告于商業會議所實業家諸君」, 『夜雷』(1-2), 1907.3; 「同續」, 『夜雷』(1-3) 1907.4; 「大韓의 進步」, 『夜雷』(1-6) 1907.7; 「韓日交際及將來」, 『夜雷(1-6)』, 1907.7.

그의 心情은 本書의 凡例에서 著述目的을 다음과 같이 明白히 하여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一. 本書는 著者가 國家事勢의 切迫함을 보고 國民의 深夢을 깨게하며, 向方을 指針하기 위하여 著作함." (51)

親日派의 勢力은 衝天하였고, 國權은 점점 落陽의 길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가는가 하면, 나라는 外債에 허덕이고, 産業과 敎育의 振興을 期할 수 없었던 時期에, 日本留學을 마치고 돌아 온 그는 現實論에 立脚한 國民의 啓發을 發想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熱血이 흘러 넘치는 一筆의 筆鋒으로 國民의 깊은 꿈자리를 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本書가 日本帝國主義者들에게는 큰 障害物밖에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遡及立法한 出版法(1909. 2. 23 法律 第6號)을 最初로 適用하여, 本書가 治安에 妨害된다는 理由를 들어, 그의 發賣·頒布를 禁하였다. (52) 偶然의 一致인지는 몰라도, 本書의 後篇에 附錄으로 發表되어 있는 「大韓今日善後策」의 筆者인 安國善(53)의 著書 『禽獸會議錄』도 같은 날 같은 조치를 받게 되었다.

本書에 관한 內容은 다음에서 보겠지만, 나라의 行方의 비젼을 提示한 이같은 著書가 出版되어, 그것이 日本帝國主義者에 의해 發賣禁止되고 押收되었다는 史實은 그 自體만을 考慮하여서도 큰 歷史的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著者 金大熙가 28歲라는 젊은 나이로서 이같은 비젼을 展開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後進國 經濟論을 배우는 後學들에게도 龜鑑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Ⅱ) 金大熙의 善後策

金大熙는 本書를 著述함에 있어서 第1·2章에서는 國家 및 國際外交에 관한 一般論과 事例를 中心으로 展開하였고, 第3章은 朝鮮의 歷史와 現實을 政治·社會·敎育·軍警·經濟·産業 등으로 나누어 詳論하였다. 第4章에서는 歐州諸國과 日本 등 先進國의 進步論을, 第5章에서는 日本의 對韓政略의 顚末을 說明하고 있다. 끝으로 第6章에서는 그의 對策論을 各分野에 걸쳐 具體的으로 論及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紙面關係上 그의 朝鮮論과 日本의 朝鮮侵略論에 관하여서만 보고 그의 對應策論에 들어가기로 한다.

---

(51) 金大熙, 『二十世紀朝鮮論』, 凡例 p. 1.
(52) 1909年 5月 5日 內部告示 第27號.
(53) 1899年 早稻田大學政治科卒業, 韓日合併時까지 度支部書記官, 著書로서는 『政治原論』, 『商業經營法』 등 多數. 新小說作家로서 活躍.

(1) 朝鮮論

金은 朝鮮이 建國以來 어떠한 길을 걸어와서 滅亡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를 史的으로 究明하고, 朝鮮의 未來像에 관한 言及을 하고서는, 朝鮮政府가 國政의 本意를 잃고, 올바른 政治를 하지 않고, 國民은 中國을 大國이라고만 알고, 다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鎖國狀態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은 國家百年之大計도 있을 수 없고, 外國과의 競爭도 없어서 國家進步의 大原則에 어긋나, 建國 4000年來에 한번도 興旺하지 못하였다고 恨嘆하였던 것이다.

첫째로, 金은 敎育의 現狀을 論하고, 民智啓發이란 本來의 敎育目的으로부터 벗어나, 虛送歲月하고 無爲徒食하는 亡國鬼만 늘어나게 되었다고 憂慮하였다. 李朝五百年間 이러한 亡國鬼가 安樂한 歲月을 보내와 國家滅亡之境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러한 亡國鬼들은 可惜없이 地球上에서 몰아 내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둘째로, 그는 資本의 重要性을 論하고, 兩班階級의 土豪와 社會秩序의 紊亂으로 인한 盜賊의 橫行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貯蓄心 減退와 生産意慾의 縮少가 招來하였다고 說明하고서는 그의 實業家論을 展開하였다.

그는 한 나라에 있어서 實業家가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는 그들의 活動이 國民生活의 豊富와 國家安泰에 直結되어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도 明白하다고 論하고 朝鮮의 實業家가 肉塊的 實業家로 되어 가고 있다고 恨嘆하였던 것이다. 그의 肉塊的 實業家像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實業家란 國家가 어떠한지, 農商工業의 關係가 어떠한지, 銀行會社의 性質利害가 어떠한지, 貨幣의 性質利害가 어떠한지 등등을 모르고, 進取의 氣象도 없고, 忍耐의 氣象도 없이, 다만 酒色만을 좋아한다. 一見하여 東西를 모르는 肉塊에 지나지 않는 者들이다." (54)

세째로, 社會一般風俗이 紊亂하여 온 연유는 한편으로는 朝鮮의 孔孟之道와 仁義之術이 惡用되는 데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開國後 급작스럽게 밀어 온 外國思想의 惡用에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金은 當時 이미 警察權이 日本人에 의해 奪取된 마당에 盜賊만을 잡는 것을 存在理由로 삼고 있는 警務廳같은 것은 廢止하고, 그에 所要되는 費用은 敎育費로 轉換시키고, 그 廳舍는 學校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한편 軍部는 內亂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설혹 東學亂과 같은 義兵亂이 있다 하더라도 骨肉相爭은 아니되므로, 차라리 軍部를 廢止하고 租稅負擔을 줄이고, 國民의 힘을 疲困케 하

(54) 金大熙 同上, pp. 66-7.

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2) 日本의 朝鮮侵略論

그는 日本의 朝鮮侵略에 관하여, 歷史的 背景을 비롯하여 金融界·交通界·軍用地·中央과 地方行政(財政과 警務)의 現狀을 論한 다음, 日本의 朝鮮併合에 관한 萬全 不敗의 策略을 嘆하였다. 먼저 그는 日本의 植民이 急速하게 밀려온 理由를 外國貿易과 植民事業과의 關係, 日本國內의 人口增加와 資本利得의 低下, 植民地 商工業發達에 의한 利潤極大化 등에서 찾아 說明하였다. 끝으로, 朝鮮의 國民이 外國事情에 疎外되어 있는 틈을 타서, 商工業의 發達과 稅關의 稅收를 獨占하기 위해서, 三面臨海의 魚資源을 마음껏 獲得하려고 日本人은 多數 渡來할 것이며, 鑛產採取의 技術不足을 補完한다는 美名아래 日本人은 技術과 資本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3) 우리들의 對應策

이상에서 보아온 여러가지 理由로, 日本의 朝鮮植民地化가 점차 加速化하여 가는 것을 보고, 金은 國民의 團結을, 그리고 敎育의 振興과 實業의 發達을 呼訴하였다. 그는 問題所在를 論함에 있어서 첫째로 農工商實業의 振興, 둘째로 精神的 敎育의 培養, 세째로 實力에 의한 自由獲得이란 그의 基本路線을 數次로 밝힌 바 있다.

二十世紀는 完全한 開明時代라고도, 또는 道德時代라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財力時代의 萬民平等下에 共同으로 邁進하여서, 資本形成을 期하고 나라 삶을 豊富하게 하고, 그 生命, 그 집, 그 나라를 永久히 保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主要項目別의 政策手段을 提示하였다.

> "每日의 收入中 조금씩이라도 티끌 모아 泰山格으로 集大成하여, 後日의 大資本家를 期하고, 老少男女를 不拘하고 相互 依賴하지 말고, 共同으로 邁進하여, 一人이 耕作하여 十人이 먹는 일이 없이, 九人이 耕作하여 十人이 먹고, 그의 집과 나라의 生活을 豊富하게 하고, 生과 집과 나라를 永久히 保存하여 가면서 精神을 培養하고 勤勉貯蓄하여 生活의 豊饒한 힘 즉 農商工의 實力과 培養된 精神的 智力을 가지고 時機의 到來를 기다린 後, 一擧에 成功하면 어찌 아름다울 것이 못되겠는가." (55)

實力이 없는 對抗과 暴動은 妄動에 지나지 못하고, 設或 그 움직임이 妄動이 아닐지라도, 그 失敗는 日本人으로 하여금 加一層의 利益을 얻는 機會를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漸次 悲境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의 主要 政策手段은 다음과 같이 列擧하여 볼 수 있다(說明省略).

---

(55) 金大熙 同上, p. 114.

① 產業調査와 商業會議所의 中央組織과 地方都市에로의 擴散
② 里中契의 擴大(面·郡·道中契)로 公益·敎育事業의 推進
③ 各業成團(同業組合)의 設置
④ 興業團(假稱)의 設置
⑤ 農工商의 技術導入
⑥ 新聞社內 學會兼置
⑦ 節儉과 活動의 勸奬
⑧ 國民精神培養을 위한 基督敎普及(儒敎·佛敎보다 發達의 氣像을 培養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⑨ 大主義를 定할 것——國民全體가 合心協力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大綱領의 決定

以上에서 보아 온 金大熙의 救國善後策은 漸進主義·實力培養主義 思想에 根基한 것이며, 產業發達과 敎育振興이 隨伴되지 않는 擧動은 妄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獨立을 爭取할 길은 오로지 實行對決 以外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後 日本의 帝國主義·軍國主義統治가 殘忍無道하게 實施되었던 40餘年間은 그가 主張한 바와는 正反對의 길을 밟았던 것이다.

그의 持論에 대한 正當性 如何는 史家에 의해 올바르게 判斷되어 질 것이지만, 經濟學徒의 立場에서 보아, 그의 持論의 精神과 方法論 및 方向에 若干의 修正을 加한다면 그대로 오늘날의 現實社會(특히 後發後進國社會)에 符合되는 點이 許多하다는 것을 筆者는 痛感한다.

IV. 日帝下의 經濟學動向

1. 一 般

1910年의 韓日合併은 開化期에 싹트기 시작하였던 우리나라의 近代經濟學과 經濟思想의 發展에 크게 衝擊을 주었다. 첫째로, 韓末에 盛況을 이룩하였던 각종 啓蒙的 出版物은 總督府의 彈壓으로 그것들을 出版하던 啓蒙·愛國團體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게 되고, 따라서 啓蒙的 經濟學論述을 發表할 場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둘째로, 土地調査事業의 進行(1912~18)을 中心으로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基盤造成이 確固不動하게 되자, 西歐의 近代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을 導入하여 自主獨立의 韓國의 資本主義的 國民經濟를 形成하려고 하였던 希望과 努力은 水泡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經濟學發展이란 좁은 觀點에서만 보더라도 韓日合併은 重大한 轉換

點이었고, 그것도 進展이 아닌 後退, 生成이 아닌 冬眠에로의 轉機였다.

1919年 3·1運動이 있기 前, 朝鮮總督府의 武斷政治下에서 經濟理論을 普及하려는 啓蒙的 論說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程度였다. 그러나 몇몇 人士가 啓蒙的인 論說[56]을 發表한 것을 통하여 若干의 特徵的 性格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問題는 주로 日本留學生에 의하여 많이 쓰여졌고, 따라서 韓末에 比하여 새로운 理論을 섭취하고 있었으나, 現實的인 經驗을 통한 植民地現實에 대한 깊은 洞察이 缺如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點에서 啓蒙思想의 境地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3·1運動은 植民地支配下 民族의 獨立運動과 社會運動 그리고 國民意識 全般에 決定的 變化를 가져다 준 一大 民族史的인 뜻깊은 意義을 띠고 있다. 이는 또한 韓國民의 經濟思想과 經濟學에도 적지 않은 急激한 轉換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첫째로, 1918年 土地調査事業이 完了됨에 따라, 植民地支配의 制度的 基盤이 過度한 農民收奪을 수반하는 半封建的 小作制度로 굳어졌고, 總督府가 내세운 近代的 土地制度의 確立이라는 名分의 虛構性은 白日下에 폭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國民 大多數를 차지한 小作農民들의 自活上의 改善과 小作制度의 改善에 대한 要求는 必然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啓蒙的·學問的 論說과 調査研究結果가 多數[57] 出現하게 되었던 것은 또한 自然現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日本帝國主義 植民地下의 朝鮮에 있어서의 工業育成을 抑制하려고 總督政治初期(1910)에 制定되었던 會社令[58]이 1920年 4月에 廢止됨에 따라, 日本資本이 本格的으로 進出되면서부터 韓國人에 의한 企業創立의 길이 部分的으로 트이게 되자, 民族企業을 育成함으로써 日本資本의 支配에 對抗하여야 한다는 民族的 要求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1907年 金大熙가 그의 著書『二十世紀朝鮮論』에서 말한 바 있는 産業의 振興에 관한 主張은 20餘年이 지나서 다시 復活되어 많은 市井의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반복되었던 것이다.[59]

세째로, 日本資本의 進出에 의한 工業化의 進行過程에서, 勞動者階級이 形成되고, 그에 따라 近代的 意味로 解釋될 수 있는 勞動運動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要求는 漸次 社會主義思想을 導入하면서[60] 民族獨立運動과 結付시켜 가는 過程에서 所謂 社會主義=民族主義라는 公式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56) 黃錫翮,「經濟學의 槪要」; 金尙沃,「經濟學의 大意」; 姜洛周,「分業의 便과 弊害及困難」; 劉在豊,「經濟學說」등.

(57) 李基俊編著,『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1980, pp. 151-2 參照.

(58) 日本國內企業의 朝鮮進出을 抑制한다는 것이었지만, 實像은 民族企業의 抑制에 目的을 두고 있었다. 1920年의 設立會社 總 544社中 80% 가까이되는 會社가 日本人所有였다.

(59) 李基俊, 同上, pp. 86-8 參照.

(60) 同上, p. 78 參照.

네째로, 이상의 세가지 與件變化와 더불어 植民地 統治當局이 所謂 文化政治를 表面에 내세우면서부터 言論의 自由가 許容되는 등 一部 宥和政策의 實施 結果, 新聞·雜誌 등이 簇生하였으며, 經濟論述을 發表할 수 있는 場이 蘇生하였다.

이같은 與件下 우리나라의 經濟學은 韓末의 導入·啓蒙·教育이란 初期段階의 性格을 脫皮하면서, 理論의 幅을 넓히고 깊이를 深化시키면서 現實問題의 解決을 위한 積極的인 對應策의 講究와 理論研究分野의 分化作用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1931年의 滿州事變과 1937年의 中日戰爭에 이어 1941年에 勃發한 眞珠灣攻擊에 뒤따른 太平洋大戰은 韓國에서의 僞裝된 文化政治의 終止符와 獨裁軍國體制로의 一大轉換을 招來한 契機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5年 終戰後 民族分斷의 悲劇的인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戰時經濟體制로 移行하는 過程에서, 經濟學의 理論과 思想의 發展은 期待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동안 싹튼 社會主義 經濟思想은 꺾여지게 되고, 學內에서는 日人教授를 포함한 많은 韓國人教授가 追放되었다. 經濟現實에 直面하여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諸問題를 다룬 學內·市井의 經濟論說家들 中에는 日帝의 彈壓과 抑壓에 못이겨 外觀上으로 그들에게 忠誠을 보이면서, 暗暗裏에 民族의 自立과, 大衆生活의 改善이란 愛族觀念을 품고 文筆을 통하여 日帝에 항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日帝의 軍國主義에 적극 呼應하는 글을 쓴 사람도 있었다.(61) 어쨌든간에, 結果的으로 볼 때, 日帝의 植民地支配를 合理化시키고, 방조함으로써 1930年 前半까지만 하여도 輸入經濟學을 止揚하여 民族的 經濟學으로 發展할 可能性을 지니면서 命脈을 이어온 經濟學認識의 흐름을 後退시키고 抹殺시켰던 것도 事實이다.

이같이 斷絕된 悲運의 韓國經濟學의 發展過程에서도,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그의 出刊 2年後인 1938年에 韓國人에 의하여 紹介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더 以上의 發展을 못하고 學界에서 關心事도 못된 채, 1945年의 解放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매우 愛惜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年代부터 韓國人 經濟學者中 많은 분이 韓國經濟史 研究分野의 學問的 隊列속에 끼게 된 以後, 確立되어 온 經濟史學만은 例外로 순탄한 發展의 길을 밟아오면서,

---

(61) 1930年代 前半까지는 民族을 意識하고 民衆의 生活에 關心을 보였던 經濟論說家들중 裵成龍·李如星·許然·李文熙·李寬求·洪性夏·金正實·梁甲錫·高在旭·崔鎭元 등이 1937年부터는 거의 文筆活動을 中斷하였다는 事實은 注目할 만하다.

그후 1930年代 前半에 이어서 現實의 經濟問題를 다룬 論文을 發表한 者中에는, 徐椿·李健赫·李覺鍾·朴克采·印貞植·尹行重 등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登場한 사람으로는 金光淳·全承範·高承濟·張 鉉·李鍾秀 등이 있다.

이들의 글을 全般的으로 檢討해 보지 못한 筆者로서는 斷定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一部는 日帝의 軍國主義에 呼應하는 글이었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1945年의 解放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本編에서는 社會主義理論·思想의 導入과 그 終末, 經濟史學의 確立, 그리고 J.M. 케인즈의 一般理論의 紹介에 관한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 理由로서는 筆者의 力不足을 들 수 있고, 또한 주어진 與件下의 諸般 制約條件도 있다.

2. 社會主義理論과 思想의 導入과 그 終末

(1) 一 般

韓末에 拒否反應的으로 받아 들여졌던 社會主義 理論과 思想은 그나마 韓日合併을 契機로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20年代에 들어오자 國內外의 與件變動으로 蘇生을 하기 시작하였다.

3·1運動으로 神經이 날카로와진 日本當局에 의해 이해 8월에 있었던 Imperial Rescript(所謂 大詔煥發)의 公布, 新任總督의 敎育改革(The Diffusion of Education의 聲明), 이어 新朝鮮敎育令의 公布라는 一連의 文化政治의 標榜은 社會主義 理論과 思想의 普及化를 可能케 한 큰 要因이다.

또 한편으로, 統治國家인 日本에 있어서는 1900年代 初期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思想은 基督敎 社會主義를 媒介로 하여 定着하기 시작하였고, 大正年代(1912~26)에 들어와서는, 大正데모크라시라고 부를 수 있을 程度로 盛況을 이루어, 進步的 知識人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眞理로서 君臨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1917年의 러시아三月革命의 影響을 받아 일어난 1918年의 米穀騷動을 契機로 더 큰 衝擊을 받았다. 즉 時代의 急激한 變動속에서 日本資本主義는 動搖하여, 그 根基가 威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理想主義的인 民本主義나 社會政策과 같은 것은 아무런 所用이 없게 되었다. 그러한 思想的 間隔을 메꾸고, 많은 知識人의 가슴에 들어 간 것이 마르크스主義였던 것이다. 이같은 日本의 思想的 動向이 直接·間接的으로 우리나라의 知識人들에 影響力을 미쳤을 것은 再言할 바 없다.

1920年代에 들어 온 社會主義思想은 넓은 뜻의 社會思想과 結付되어 그 뜻과 歷史의 解說的인 論文으로 發表되었다. 唯一하게 李順鐸의 譯으로 되어 있는 『마르크스의 唯物史觀』만이 마르크스의 原典을 紹介한 것이었고, 마르크스의 『資本論』 등의 經濟理論을 中心으로 한 勞動價値說·剩餘價値說 등 經濟思想은 거의 紹介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1930年代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즉 當面한 現實分析의 道具로서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이 마르크스의 經濟思想의 紹介를 始發로 擴散되었던 것이다.[62]

(62) 姜明錫, 「칼·마르크스의 經濟思想」; 金光薰, 「마르크스의 經濟論과 그 批判」; 權一文,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說」; 薛友星, 「마르크스主義農業理論」; 金鵬, 「마르크스主義恐慌論」; 千民治, 「푸로레타리아經濟學」; 高永煥, 「資本論解說」; 金匡, 「마르크스經濟學說의 歷史的 發展」; 崔鎭元, 「마르크스主義地代論 ABC」 등.

어쨌든간에 이와 같은 社會主義 理論과 思想의 導入이 지니는 史的 意義를 찾아 본다면 다음의 두가지로 集約될 수 있지 않는가 한다.

첫째로, 無慈悲하게 彈壓을 받았던 3·1運動의 失敗가 民族意識에 심어 준 鬪爭的 傾向 및 社會主義運動과 無關하다고 할 수 없다. 事實上, 이 時期에 있어서 民主主義理念과 社會主義思想은 거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後者는 前者의 一部分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民族運動의 前面에 露出되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小作爭議 등 民族의 生存權確保를 위한 鬪爭으로 轉換되고 있었으며, 當時로서는 바로 民族運動이라는 性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農業恐慌 또는 植民地經濟構造 등을 分析하는 글중에 現實 接近方法이나 問題意識을 마르크스主義 또는 社會主義思想으로부터 援用하는 學術論文을 찾아 볼 수 있다.[63] 즉 이것들은 當時의 마르크스經濟學硏究의 水準을 測定할 수 있을 程度의 論文이었다.

(2) 李順鐸과 河上 肇

1920年代에 있어서 우리나라 社會主義經濟學의 導入에 있어 主力을 기울인 象牙塔人으로서는 李順鐸을 들 수 있다. 李는 1919年 京都帝國大學의 經濟學部가 誕生될 때 同大學에 入學하여 當時 日本마르크스主義 經濟學派의 巨星이였던 河上 肇의 指導를 받았던 것이다.[64] 同大學 在學中 그는 韓國經濟의 諸問題를 다룬 數篇의 論文을 東亞日報에 寄稿하였고,[65] 卒業한 해인 1922年에는 마르크스의 諸原典中 唯物史觀을 飜譯하여 發表하였다. 즉 그는 『共產黨宣言』과 『資本論』中에 있는 唯物史觀을 譯出하여, 1922年 4月 18日부터 東亞日報에 18回에 걸쳐 連載하였다. 그는 譯後所感으로 「마르크스의 資本論에는 全體를 通하여 唯物史觀의 血管이 通해 있다는 것, 또한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如何한 內容을 가진 學說인가」[66]를 알게 될 것이며, 自己가 論文을 譯하여 發表하는 뜻을 讀者들이 理解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河上 肇의 『近世經濟思想論』中의 第三編 「칼·마르크스」을 抄譯하여 '마르크스想思의 槪要'라는 題로 37回에 걸쳐 連載하였다.[67] 그는 序頭에서, 마르크스思想이 앞서 紹介한 唯物史觀뿐만 아니라, 勞動價値說·剩餘價値說 등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63) 盧東奎, 「朝鮮農家經濟實相調査總解部」, 『東方評論』(1-3), 1932. 7.
(64) 李順鐸外에 河上 肇의 直接·間接的 影響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李寬求·徐椿·盧東奎·朴克采·尹行重·黃道淵 등 京都帝國大學 經濟學部 出身者들은 그 大部分이 日帝下의 社會主義 經濟學者들이었다.
(65) 東亞日報, 1920. 8. 4~11, 「半島의 經濟上地位를 論하여 今後經濟發展策에 及함」; 『新民公論』(2-7), 1921. 7 「歐州戰爭의 社會思想에 대한 影響을 論함」 등.
(66) 東亞日報, 1922. 5. 8.
(67) 東亞日報, 1922. 5. 11~6. 23.

들을 通俗化시켜서 同好의 人士들의 研究에 一助가 되기 위하여 抄譯하였다는 理由를 밝히고, 「現代思潮를 支配하는 原動力인 마르크스思想의 系統을 가르치는 데는 唯一無二한 者이오, 따라서 近代科學的 社會主義가 如何한 者인가를 아는 데는 또한 이 一書에 比할 者가 없으리라고 思唯하노라」[68]라고 斷言하면서 그의 恩師의 著書를 讚揚하였다. 한편 '社會問題에 대한 河上 肇博士의 態度와 見地'[69]라는 글로 韓國에 처음으로 河上 肇를 紹介하기도 하였다.

그는 칼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을 譯出하였을 때 序頭에서 「恩師 河上 肇博士의 厚誼를 多謝하며, 兼하여 博士의 注意시킨 事項에 對하여는 加一層 나로 하여금 조심시켰음을 謝하노라」[70]라는 글로 시작하였다. 이런 點으로 보아, 그가 河上의 思想으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았던 것은 틀림없고, 그가 京都帝國大學 在學時 留學生들 사이에 '朝鮮의 河上 肇'[71]란 別名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보더라도, 그의 青春의 精力을 마르크스主義思想의 紹介와 消化에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1930年까지 마르크스主義에 立脚한 許多한 글을 發表했다. 그러나, 1938年 2月에 所謂日帝가 꾸며낸 「延禧專門學校 經濟研究會事件」으로 拘束되어, 同年 12月에 同僚敎授인 白南雲·盧東奎와 더불어 拘束 10個月만에 治安維持法違反으로 送局되었다.[72] 이 事件으로 盧東奎는 獄中得病하여 翌年死亡하였고, 李·白 兩敎授는 延禧專門學校를 떠나게 되었다.

1945年 8月 祖國解放과 더불어 그의 思想도 解放되어(?) 1948年 8月 大韓民國政府樹立後 初代 企劃處長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變節은 1930年代에 들어 와서 目的을 爲해서는 手段을 가리지 않는다는 마키야벨리즘에 一時 빠졌다는 點과 敎會執事로서 基督敎를 信奉하게 되었다는 點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아마도 辨證法的 唯物論者로부터 變身하여 唯心論的 辨證論者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간에 1920年代 우리나라의 社會主義 經濟學의 導入에 있어서 體系的인 紹介와 研究를 하였다는 點에서 李順鐸은 우리나라 西歐經濟學發達史에 永久히 記錄될 人物이 아닌가 한다.

(3) 그 終末

J.M. 케인즈의 『雇傭, 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이 나온 1936年은 우리나라 社會主義 經濟學의 導入·展開에 큰 衝擊을 갖다 준 日本의 昭和維新이 시작한 해인 것이다. 즉 1936年의

(68) 同上, 1922. 5. 11.
(69) 『新生活』(1-6), 1922. 6.
(70) 東亞日報, 1922. 4. 18.
(71) 『三千里』(12), 1931. 2, 「延禧專門敎授層評」.
(72) 朝鮮總督府警務局編, 『最近朝鮮治安狀況』, 1938年, p. 336.

2.26事件, 1937年의 華日事變을 契機로 日本의 軍國主義는 超國家主義로 一大轉換하여 갔다. 이러한 過程속에서, 1937年 12月과 翌年 2月에 있었던 1,2次에 걸친 日本國內의 人民戰線事件을 頂點으로, 日本 本土內의 學界內外의 社會主義者는 勿論, 穩健한 社會民主主義者까지도 檢擧되어, 學者들은 象牙塔을 떠나게 되었다. 이 事件의 影響을 받아, 韓國內에서도 人民戰線에 關係되는 人士의 檢擧와 各中等·專門學校의 檢索이 같은 期間內에 있었다.(73)

그 結果, 經濟學敎育의 一線에서 그나마도 活躍하였던 韓國人 經濟學者中 앞서 본 延禧專門學校의 李·白·盧의 三人敎授外 普成專門學校의 洪性夏·金洸鎭·李寬求 등이 象牙塔을 떠나게 되었다.(74) 市井社會主義者들은 思想的 轉向을 强要당하거나, 스스로 轉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無口의 大衆속에 파묻히게 되었다.

勿論 그들 중 一部는 社會主義者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大部分은 自由主義思想을 가진 民族主義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日本超國家主義가 가져다 준 解放前夜의 우리나라 西歐經濟學導入과 展開에 對한 衝擊은 8·15解放後의 우리나라 經濟學界에 混迷한 狀態를 안겨다 주었던 것이다.

3. 經濟史學의 發達

1930年代는 日本帝國主義 植民地下의 韓國經濟史學이 確立된 年代라고 推論할 수 있다. 이러한 推論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根據에 基礎를 둔다. 첫째, 硏究者의 數에 있어서나, 發表된 硏究內容에 있어서 1930年代는 20年代와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豊富했으며, 둘째, 몇몇 學者들에 의하여 韓國經濟史의 體系的 構成이 試圖되었으며, 세째, 이때부터 韓國人에 의한 韓國經濟史硏究가 出現하기 시작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20年代는 1930年代의 活潑한 韓國經濟史硏究와 關聯하여, 그 基礎條件이 準備된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즉 朝鮮總督府는 京城帝國大學의 日本人 經濟學敎授들을 積極, 支援하여 植民地經營에 必要한 많은 資料를 出刊케 하였다.(75) 그 中 하나가 韓國土地制度史에 관한 最初의 體系的 硏究라고 할 수 있는 『朝鮮土地制度 及 地稅制度調査報告書』(76)이다. 勿論 이 硏究는 다른 모든 資料와 함께 朝鮮總督府의 支援을 背景으로 植民地史觀에 立脚하여 집필된 것이다. 이러한 資料의 出刊에 따라 日本人(77)에 의한 많은 經濟史論文이 나왔다.

(73) 東亞日報, 1938.2.27.
(74) 朝鮮內 各專門大學의 日本人 經濟學敎授들도 多數肅淸되어 象牙塔을 떠났다. (1939.4.6. 每日新報).
(75) 朝鮮史學會編, 『朝鮮史講座』; 『朝鮮史大系』 등.
(76) 和田一郎의 著書로서 1920年 2月에 發刊되었다.
(77) 四方 博, 森谷克己, 鈴木武雄 등.

한편 韓國人에 의한 韓國經濟史硏究[78]는 植民地史觀에 의한 硏究成果를 克服하고자 하는 努力과 깊게 關聯되어 있다. 즉 그들이 硏究對象을 主로 民族史의 再發見과 植民地的 半封建的 收奪의 經濟的 基礎인 土地制度·貨幣制度·農業發達 등에 두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民族의 解放·自主獨立이란 民族的 갈망과 實踐的 要求를 暗暗裏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硏究者 가운데 처음으로 韓國經濟史의 體系的인 硏究를 試圖한 사람은 白南雲이었다.[79] 先導란 말 그대로 그의 硏究成果는 그 뒤의 많은 實證的 硏究成果에 의하여 많은 部分이 批判되고 修正되었다.

어쨌든간 當時의 學界事情으로 보아 韓國經濟史의 槪說書를 쓴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不拘하고, 그가 韓國經濟史學의 開拓的 役割을 하였다는 것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白南雲에 대한 批判·論評者들의 硏究·成果도 白의 硏究를 始發點으로 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白南雲은 1933年 日本의 改造社版「經濟學全集」에『朝鮮社會經濟史』를 刊行하여, 原始社會로 부터 新羅統一時期까지의 韓國經濟史 槪觀書를 쓰는 것을 試圖하였다.

1937年에는『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卷을 發刊하여 高麗時代의 社會經濟의 槪說을 試圖하였던 것이다. 白의 社會經濟史에 대한 論旨의 紹介는 省略하고, 1930年以後 나타난 韓國人 經濟史學者들의 主要硏究成果만을 紹介하는 것으로 한다.

○ 1930年代

李北滿 '朝鮮에 있어서 土地所有形態의 變遷' 1932,

朴文圭 '農村社會史의 起點으로서의 土地調査事業' 1933,

金洸鎭 '李朝末期의 朝鮮貨幣問題' 1934,

李淸源 '亞細亞的 生產樣式과 朝鮮封建社會史' 1935,

'朝鮮封建社會史' 1935,

'朝鮮原始共產體硏究' 1935,

'朝鮮原始社會硏究' 1936,

『朝鮮讀本』 1936,

『朝鮮社會史讀本』 1936,

---

(78) 1920年 美國에서 發刊된 白一圭著『韓國經濟史』는 外地에서 집필된 탓도 있어 資料提示가 不充分하여, 學界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다.

(79) 白南雲의 韓國經濟史硏究는 朝鮮契에 관한 것으로부터 始作하였다.
「朝鮮契에 대한 社會史的 考察(一·二)」,『現代評論』(1-6, 1-7), 1927.7~8.

『朝鮮歷史讀本』 1937,

李相伯 '高麗末期에 있어서 田制改革運動과 李成桂' 1937,

金洸鎭 '高句麗社會의 生產樣式' 1937,

李淸源 '朝鮮封建的 構成의 成立過程' 1938,

姜誑鐸 '朝鮮農業의 生產시스템의 分化' 1939.

○ 1940年代

柳子厚『朝鮮貨幣史』 1940,

姜誑鐸 '朝鮮에 있어서의 食糧問題의 發達過程' 1940,

'朝鮮에 있어서의 共同勞動과 그 史的 變遷' 1941,

朴時亨 '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 1941,

李相伯 '高麗朝末期李朝初期에 있어서 李成桂派의 田制改革運動과 그 實績' 1941,

全錫淡 '李朝初期의 土地問題' 1941,

文定昌『朝鮮의 市場』 1941,

『朝鮮의 農村團體史』 1942,

崔虎鎭『近代朝鮮經濟史』 1942.

(그 밖의 著者·論文에 관해서는 筆者編著,『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1980, pp. 64-6 參照)

4. 케인즈의『一般理論』의 紹介

(1) 尹行重과 케인즈의『一般理論』

A. 스미드의 古典派 經濟學이 誕生된 後 200餘年間 經濟學은 몇차례의 革命을 經驗하였다. 그러나 케인즈革命은 20世紀에 있어서 가장 큰 波紋을 學界에 던졌던 것이다. 케인즈革命의 主體가 된『雇傭, 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以下『一般理論』이라고 함)이 이 世上에 나온 해가 1936年이고 보니, 半世紀를 넘어 선 셈이다.

『一般理論』이 英國에서 처음 發刊되었을 때 當時 美國의 하아버드大學院에 在學中이던 오늘날의 著名한 케인지안들[80]은 自國版의 刊行을 기다리지 못하고 直接 英國版을 注文하여 眞摯한 討議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케인즈革命의 理論的 構想·內容 등을 곧바로 理解할 수 없었고, 적어도『一般理論』이 나온 後 一年乃至 1年半餘는 그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누구 한사람도 解釋하지 못하였었다고, 當時 同大學院學生의 一員이었던 P. 사무

(80) P. Samuelson, R. Triffin, J. Tobin, R.M. Goodwin, P. Sweezy, R. Musgrave 등.

엘슨(1970年 노벨經濟學賞受賞者)이 懷古한 바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一般理論』의 出刊 2年 後인 1938年, 이와 같이 難解하였던 케인즈의 『一般理論』의 體系를 紹介하고 批判을 하여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게 한 經濟學者의 先驅的 役割을 밝히고자 한다. 設惑 그가 社會主義 經濟學者의 立場에서 批判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史實을 밝혀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西歐經濟思想 導入史의 一面을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後學들의 經濟學硏究에 一針을 加하는 契機가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一般理論』이 出刊된지 二年後인 1938年 8月에 當時 普成專門學校(現 高麗大學校) 敎授였던 尹行重은 '理論經濟學의 最新學說 케인즈 經濟의 理論'이란 題下에 東亞日報에 5回에 걸쳐 連載하였던 것이다.(81) 尹은 그의 論文의 序頭에서 當時의 世界經濟現象——1929~30년의 世界經濟恐慌의 後遺症에 대한 市民經濟學者들의 處方이 아무런 效驗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名聲높은 經濟理論家(82)들도 無氣力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고 前提하고, 케인즈의 理論體系를 紹介하는 뜻을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 "케인즈의 巨大한 學問的 成果가 世界經濟學界에 發表되자 市民經濟學者들의 歡喜와 激讚은 그칠 바를 몰았으며, 或者는 리카도以來 가장 銳敏透徹한 劃時代的 勞作이라고 까지 極言하였으니, 現段階에 胚胎한 學界의 最新學說인 케인즈의 理論體系를 簡單히 紹介함도 無意義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83)

이와 같이 말한 然後, 尹은 케인즈의 生涯와 業績을 略述하고서는, 케인즈理論의 基本的 構造·雇傭理論·利子理論·結論의 順으로 케인즈의 『一般理論』을 紹介하였고, 그의 批判을 添加하였다.

그는 케인즈의 理論의 內容이 너무나 專門的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數式을 援用하여 體系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쉽게 紹介하기에는 困難한 點이 많으며, 따라서 槪念의 嚴密한 規定을 缺如할 念慮가 없지 않아 있으니 諒解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讀者에 대한 附託의 말도 하였다. 勿論 이와 같은 말은 케인즈의 『一般理論』의 難測性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그의 人間的 謙虛性에서 나왔으리라고 본다.

『一般理論』이 出刊된지 半世紀가 지난 오늘날의 時點에서 볼 때, 尹의 內容說明·問題提起·批判 등은 不充分하고, 큰 誤謬를 犯한 點이 許多하다고 보는 것은 當然하다. 이는 『一般理論』의 難測性에 緣由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 그 自身이 唯物史觀의 信奉者이

(81) 東亞日報, 1938. 8. 3~7.
(82) G. Cassel, J.A. Schumpeter, F.A. von Hayek 등.
(83) 東亞日報 1938. 8. 3.
尹行重, 『現代經濟學의 諸問題』, 博文書館, 1943, p. 83.

고, 社會主義 經濟思想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었고, 스스로 市民經濟學者의 領域밖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以上의 理論的 究明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도 起因한다고 본다. 그것은 그가 같은 論文을 一言半句틀리지 않고 그의 處女作『現代經濟學의 諸問題』[84]에 再收錄하였을 뿐 別다른 理論的 發展을 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自明하다.

(2) 悲運의 經濟學者

第二次世界大戰中 潛在的 社會主義者이었던 尹은 戰後, 社會主義 經濟學者로 탈바꿈하였다.[85] 그는 케인즈理論과 對立되는 方向에서 그의 理論體系를 確固하게 다져갔던 것이다. 尹은 戰後 美國의 마아샬플랜에 立脚한 歐羅巴 資本主義諸國家의 눈부신 復舊와 IMF의 發足을 契機로 世界通貨의 安定을 期하였던 歷史的 事實을 經驗하지 못하였다. 케인즈理論이 從來의 均衡理論의 微視的 分析方法에 巨視的 分析方法을 하나 더 添加함으로써 케인즈經濟學派를 形成하게 되었다는 事實도 몰랐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케인지안이 巨視的 모델을 操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뜻에서의 統計的인 數量化, 또는 質的인 것의 數量化의 道具를 케인즈自身이 供給하여 주었다는 事實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社會主義 學者로서 民權의 平等을 基本條件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主張하였던 尹은[86] 京城大學(서울大學校의 母體) 敎授職[87]을 떠나 越北하였지만, 北韓에서 제대로 敎授生活도 못하고, 그렇다고 要職에 들어가 그의 學問的 理想을 實現시켜 볼 機會도 못 얻고, 끝내는 1959年 '自由主義·反共產黨'의 嫌疑로 肅淸·處罰되어,[88] 悲運의 經濟學者로서 그의 學者的 人生의 終末을 보고 말았다.

'萬一'이란 것이 歷史的 記錄에 許容된다고 하면, 따라서 그가 만일 1938年 케인즈의『一般理論』을 紹介한 後 繼續 이의 硏究에 沒頭하였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케인즈經濟學의 發達에 있어서 後進性을 免하게 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한다.

『一般理論』이 出刊된 後 近 20年이 지나서, 解放後 10年이 되는 1955年에 겨우 同書의 飜譯本[89]이 이 나라에 誕生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經濟學 發展過程에서 걸어야만 할 悲運의 길이었다고 본다.

(84) 同書 第一部에 「케인즈」의 經濟理論으로 收錄되었고, 이를 통하여 尹이 이 論文을 쓴 것은 1938年 7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5) 1946年 2月 民主主義 民族戰線 常任委員 등 政治活動도 하였고, 社會主義理論의 著書로서 1947年에『理論經濟學(第一卷)』(서울출판사)을 出刊하였다.

(86) 「民主主義와 計劃經濟」,『開闢』(74), 1946. 4 參照.

(87) 京城帝國大學은 1945年 10月 京城大學(Seoul University)으로 改稱되고, 同年 12月에 法文學部의 經濟學敎授로서 尹行重·白南霽·朴克采·黃道淵·姜鋌澤·崔虎鎭 등 6名이 任命되었다. (USAMGIK Ordinance No. 15, 1945. 10. 16 및 美軍政任命辭令 第56號, 1945. 12. 24.)

(88) 世界政經調査會編,『韓國·北朝鮮人名辭典』, 1979年.

(89) 金斗熙譯,『雇傭·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 民衆書館, 1955, pp. 469.

V. 結　語

悲運의 韓末에 우리나라 最初의 新聞과 雜誌를 통해 導入되기 시작하였던 西歐經濟學(思想·理論·政策)의 發達過程을 돌이켜 볼 때, 1945年 解放까지 60餘年間은 盛衰를 되풀이한 悲運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 日本帝國主義의 韓國併合의 野望이 露骨化되었을 때는, 싹트기 시작하였던 西歐經濟學의 가냘픈 싹은 꺾겨 버렸고, 併合後에는 오래간만에 蘇生하기 시작한 社會主義 經濟學도 얼마 못가서 窒息되는 運命을 當하고 말았고, 유달리 빨리 紹介되었던 J.M.케인즈 經濟學도 스스로 시들어지고 말았다. 어찌 悲運의 歷史가 아닌가?

이렇게 日本帝國主義의 朝鮮侵略은, 적어도 우리나라 西歐經濟學의 發達史面에만 限定하여 보더라도, 藥주고 病주는 格으로 歸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韓民族의 近代化를 期하고, 民主資本主義 經濟發展을 뒷받침할 經濟活動의 理論的 基礎를 우리들 스스로의 손으로 다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祖國解放이 되어서도 近十年間은 混迷한 社會的 與件下에 經濟學發達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끝으로, 本論이 走馬看山格으로 龍頭蛇尾의 글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自省하면서, 조금이라도 後學의 參考가 되어 앞으로의 우리나라 經濟學의 定立과 發展을 위한 諸硏究에 도움이 된다면 筆者로서는 더 바랄 바 없다.